대학 교양 한문의 운영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 성균관대학교 기초한문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

이승용*

|| 차 례 ||

- I. 서론
- Ⅱ. 성균관대학교 교양 한문의 운영 사례
- Ⅲ. 교양 한문 수업의 피드백과 개선 방안 제시
- IV. 결론

【국문초록】

대학 교양교육에서 한문 교과는 단순히 한자, 한자어의 습득 및 한문의 독해 와 이해 등 순수학문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교양교육에서 한문 학습의 효과는 좁게는 한자어가 6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우리말에 대한 이해를 높이 고 문해력(文解力)을 증강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그리고 넓게는 문 학(文學) · 사학(史學) · 철학(哲學)이 망라되어 있는 한문고전에 다가갈 수 있 는 기초적인 능력을 습득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역사 및 문화의 전통을 파 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대학 교양교육에서 한문 교과가 지니는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학 교양교육에서 한 문 교과의 입지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교양교육에서 한문 교과의 현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수업 방안에 대한 고민과 개 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한문 교과는 존립의 위기에 당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고는 성균관대학교의 교양 한문 교과인 기초한문을 대상으로 실제

^{*}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연구교수 / lsv-0700@hanmail.net

강의에서 활용되었던 수업 교재와 교수법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교양 한문 교과 수업의 개선 방안과 효과적인 교수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개별학교의 사례로 인식될 여지가 있지만, 각 대학들이 직면하고 있는 교양 교육에서 한문 교과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대학, 교양교육, 한문 교과, 기초한문, 교수법

I . 서론

본 연구는 대학 교양 교육에 있어서 한문 교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 교양 한문 수업에서 활용될 수있는 효과적인 교수학습법을 제안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특히 본고는수업 및 수강생과 관련해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 진행되기 어려운 대학교양 한문 강좌에서 교수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한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학습자를 도와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교양 한문의 개설 취지에 맞는수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 고민과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문 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크게는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우리말 사용을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말에 포함된 한자어와 한자를 올바로 익히게 한다는 기초 교육으로서의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전통문화의계승과 인성 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양 교육의 측면이다.1) 이 두 가지

¹⁾ 김영우, 「대학 교양 한문 교육의 방향 - 인제대학교(仁濟大學校) 교양(敎養) 한문

목표 중에 대학 교양 교육에서 이루어져야할 교육은 후자에 가깝다. 그 러나 현재 대학 교양 교육에서 한문 교과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 며, 실용성의 문제와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한문 실력의 편차로 인해 교양 교육의 측면보다는 기초 교육의 방향으로 점점 더 경도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인한다. 첫째는 중 · 고등학교 한 문 교육의 부실과 부재로 대학에 들어와 한문을 처음 접하는 수강생들 이 많아 한문 고전이나 한문 문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문 교양에 대해 강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는 각 대학에서 한문 교육의 환경의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대학 교양에서 한문 교과의 시수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 정이며, 수강생들이 지니고 있는 막연한 한문의 접근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에 강좌의 지속적 개설을 위한 일정한 학생 수의 확보가 어 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외부적인 여건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학 교양 교 육의 정신까지 버리면서 실용을 명분삼아 대학의 교양 한문을 스펙을 위한 도구과목으로 만들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그것은 교양 한문 의 종말을 잠시 지연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교양 한문을 재생하는 길 은 아니기 때문이다. 교양 교육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원하는 것과 관 계없이 고유의 목적을 위해 강제되어야 하는 것이지, 수요자 중심 교육 이라는 명분으로 고유의 목적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 자체로 교양 교육을 떠난 것이다?)

⁽漢文)을 중심(中心)으로 -」, 『漢字漢文教育』 27집, 2011, p.320.

²⁾ 김영우(2011), 위의 논문, p.321.

이와 함께 또 최근에 대학 교양 교육에서 한문 교과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문제는 수강생들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유학생들의 비중이 국내 학생들에 비해 현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서울ㆍ경기권에 위치한 대학이나 지방에 위치한 대학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의 비중이 높은학교에서 마주하게 되는 현상이다.③이러한 현상은 위에서 언급한 대학 교양 교육에서 한문 교과를 기초 교육의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 교양 교육의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와 표면적으로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 수업을 운영해야 하는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문제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

현재 대학 교양 교육에서 한문 교과가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실제 대학에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수업 방안 에 대한 고민과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한문 교과는 존립의 위기에 당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고는 성균관대학교 교양 한문 수업의 사례 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수업의 개선 방안과 효 과적인 교수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개별학교의 사례로 인식될 여지가 있지만, 각 대학들이 직면하고 있는 교양 교육에서 한문 교과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³⁾ 최근 대학 내 교양 교육 특히 한문 교과와 관련하여 중국인 유학생의 비율 증가에 대한 현상은 한새해, 「대학 교양교육에서 한문 교과목의 효율적 운영방안 -서강대 학교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 『漢字漢文教育』46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9, p.161에서 언급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Ⅱ. 성균관대학교 교양 한문의 운영 사례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Ⅱ. 성균관대학교 교양 한문의 운영 사례

1. 교양 한문의 개설 취지와 그 목적

대학 교양 교육에서 한문 교과가 한자어가 6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우리말의 어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습의 기본 능력이 되는 문해 력(文解力)을 증강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의 함양과 저변의 확대를 위해서도 한문 교 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 역시 대학 내의 교수자와 학습자가 어느 정 도 인지하고 있다. 또 한문 교과는 인문학과 관련하여 한문학(漢文學) 이라는 순수 학문의 영역뿐 아니라. 국문학(國文學) · 사학(史學) · 철학 (哲學)을 비롯한 여타 학문 분야의 기본적인 이해와 이와 관련한 원전 (原典)의 독해력(讀解力)을 신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자는 주로 대학 교양한문과 관련된 사항이고, 후자는 주로 전공 한문 의 영역과 관련된 사항이다. 한문 교과가 이러한 여러 가지 실용적인 측면과 효율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학 교양 교 육에서 한문 교과의 입지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학습자들 역시 한 문을 제 2외국어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교양 교과로서의 한문의 학 습에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먼저 대학생들의 한문 실력은 한문의 영향력이 지대하였던 과거와는 매우 다르며, 학습자들 가의 학업 편차 또한 상당하다. 그리하여 학생들 중에는 대학의 교양 수업으로서 '한문 고전'을 첫 대면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 데, 이 점은 오늘날 대학 한문 교육이 숙고해야할 중요한 문제 와 맞닿아 있다.4) 또 이 문제는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자가 수업을 진행하기 이전.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이다. 물론 교양한문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선행 학습정도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수업 이전에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학습자들의 한문 실력과 성취도가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피드백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수강생들이 어떤 이유로 교양 한문을 수강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한다. 한문 및 고전문학과 관련된 교과를 전공하는 학생이 아니라면 아무리 교양 교과라 하더라도 한문 수업 자체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수자는 교양 한문 교과가 전문 지식의 전달과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전공 한문의 수업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수강생이 비교적 한문에 대한 부담감을 덜느끼는 방향으로 수업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양 한문 교과의 개설 취지와 목적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실제 수업이 교양 한문 교과의 개설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수강생들의 한문 수준 파악과 수강생들이 어떤 목적으로 한문 교과를 수강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한다. 아울러 교수자가 수강생들을 고려하여 수업내용을 구성해야하며, 수업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교수자와 학습자의 지속적인 상호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보다 만족할 만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에서 겪고 있는 문제이므로, 성균관대학교의 기초한문 수업을 사례로 구체화하여 논해 보고자 한다.

⁴⁾ 한새해(2019), 위의 논문, p.159.

2. 기초한문 수강생 현황

성균관대학교 2018학년 2학기 기초한문을 수강한 64명의 주요 전공 을 살펴보면, 다양한 전공 영역의 학습자들이 수강 대상에 포함되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비율로 보자면 인문학 관련 전공이 많은 비 중을 차지하지만, 사회과학과 관련된 경영, 경제, 통계분야의 전공자 역 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5)

교양한문이 주로 인문학이나 한문학(漢文學)과 인접한 동양철학(東 洋哲學)이나 사학(史學)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선호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제 기초한문 강좌의 수강생을 살펴보면 어학이나 사회과학과 관련된 경영학, 경제학, 통계학을 전공 및 타 전공 수강생의 비율도 그 에 못지않게 높았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강생 전공 비 율과 관련하여 수업에 참여하는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의 비율을 살펴 보고 넘어가야 한다. 실제 교과목 기초한문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차지 하는 비율은 전체 수강인원 64명 가운데 80%를 차지하며, 경영학•경 제학·통계학을 전공하는 수강생들의 비중이 높다. 그리고 이 외국인 수강생은 모두 중국 유학생들인데. 이러한 점은 앞으로 대학 내 한문 교과 운영 방안 등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오늘날 대학 내 '국제화 지수'는 그 대학의 위상을 드러내는 주요 지 표이자 대학 경쟁력의 상징이 된 지 오래다. 때문에 학부 및 대학원 과

⁵⁾ 실제 각 전공 분야의 수강인원은 인문과학계열(2명), 국어국문학과(5명), 영어영문 학과(3명), 프랑스어문학과(1명), 중어중문학과(1명), 독어독문학과(3명), 한문학 과(1명), 사학과(2명), 철학과(1명), 문헌정보학과(6명), 행정학과(3명), 사회학과(1 명), 사회복지학과(2명), 심리학과(2명), 소비자가족학과(1명), 아동ㆍ청소년학과(1 명), 경제학과(5명), 통계학과(4명), 경영학과(10명), 글로벌경영학과(1명), 영상학 과(2명), 연기예술학과(1명), 의상학과(3명), 컬쳐엔테크놀로지융합전공(1명), 미 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2명)이다.

정의 유학생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학생이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현상은 더 이상 생경할 일이 아니다. 특히 국내 대학으로 유입되는 외국인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생들은 중국계 유학생이다. 이외 같은 현상은 기초한문 수업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중국인 유학생이 수강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요인은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한자어와 중국어와 동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중국어를 구사하는 본인들이 교양한문 참여에 수월하고 해당 강좌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간체자를 쓰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번체자를 쓰고 있어 표기 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인 수강생들은 한국어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자어와 한문을 익혀야 하는 두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다음으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유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말과 우리의 언어체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곧 학습자 사이의 학업 능력의 편차로 이어진다. 물론 중국인 유학생들을 예로 들었지만 학습자 사이의학업 능력의 편차는 국내 학생들 사이에서도 발견된다. 이는 앞서 말했던 정규 교과에서 한문을 학습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학업의 수행과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클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특수한 수강인원의 구성 및 수업 진행 이전에 수강인원이지나고 학업 능력의 편차는 수업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교강사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효과적인 수업의 설계와 진행을 위해서는 분명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⁶⁾ 한새해(2019), 앞의 논문, p.162.

3. 기초한문 수업 사례

1) 수업 개요와 교재의 구성

필자가 운영했던 2018년도 2학기 기초한문 수업은 전 학년을 수강대 상으로 하는 자유선택 교양 교과목이었다. 본 강좌가 교양 교과목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수강생들을 고려하고 교양 교과의 기본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먼저 육서(六書)를 기반으로 하는 한자의 구성 원리와 문형(文型)을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한문을 통해 한문 독해력을 증대시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두었다.

수업에 활용한 텍스트는 성균관대학교 교양한문 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교양한문(教養漢文)』이다. 학습자의 성취도 향상과 수업의 효율성을 위해 제작된 성균관대학교 아이캠퍼스를 활용하여 수업자료 파일을 시스템에 업로드 하여 학습자가 이를 수업 시간 이전에 미리 확인할수 있도록 안배하였다. 아울러 수강생들의 한자와 한자어 습득을 위해우리한문학회에서 편찬한 『사자성어 따라쓰기 365+』를 활용하여 사자성어를 익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수업시간마다 조금씩 시간을 안배하여 사자성어 학습을 병행하였고, 학습한 사자성어를 반복해서 따라 쓰면서 익히는 과정을 과제로 부여하여 수강생들의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려 하였다.

주교재로 활용하였던 『교양한문(敎養漢文)』은 한문독해력의 신장을 최종 목표에 두고 한문 작품 가운데 명문(名文)으로 손꼽히는 작품을 선별하여 표점이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주석이 부기(附記)되어 있다. 교재는 먼저 한문의 기초, 고사(故事)와 일화(逸話)를 통하여 한자와 한문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숙지한 다음, 산문(散文)을 통해 명문(名文)을

접하고, 한시(漢詩)에서 고인(古人)의 정서를 체득하며, 사상에서 동아시아를 관통하였던 사유의 정수를 숙지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있다. 한 학기 동안 운영했던 『교양한문(敎養漢文)』의 목차를 간략히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目次 -

- I. 漢文의 基礎
 - 1. 漢字
 - 1) 六書 한자의 자형 구조와 운용 원리
 - 2) 한자의 변천과정
 - 3) 部首
 - 2. 文型
 - 1) 한문 문형의 이해
 - 2) 虛辭의 쓰임
 - 3) 短文 해석 연습
- Ⅱ. 故事와 逸話

Ⅲ. 散文

- 1. 古典名文
- 2. 歷史
- 3. 地理
- 4. 政治·經濟
- 5. 言語·藝術
- 6. 科學·技術

IV. 漢詩

- 1. 自然
- 2. 情懷
- 3. 社會

V. 思想

- 1. 原始儒學
- 2. 諸子百家
- 3. 宋明理學
- 4. 韓國儒學

큰 범주로 나누어 보자면 Ⅰ. 한문(漢文)의 기초(基礎). Ⅱ. 고사(故 事)와 일화(逸話). Ⅲ. 산문(散文). Ⅳ. 한시(漢詩). V. 사상(思想)의 다 섯 가지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 한문(漢文)의 기초(基礎)와 관련 하여 1. 한자에서는 한자의 자형 및 구조와 운용 원리를 예시를 들어 간략히 설명하고 시대에 따른 한자의 변천과정을 기술하였다. 부수(部 首)에서는 한자 구성의 기본 요소인 부수의 개념과 자형(字型)을 제시 하여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2. 문형(文型)에서는 평서형. 부정형을 비 롯한 한문의 기본 문형을 구분할 수 있는 단어와 실제 예시를 통해 기 본 문형을 익히고, 그와 함께 한문에 있어 중요한 허사(虛辭)를 익히며, 실제 단문(短文)을 제시하여 해석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Ⅱ. 고사(故事)와 일화(逸話)에서는 고사성어(故事成語)의 배경이 되 는 고사(故事)의 출전(出典)과 원문(原文) 및 관련 일화(逸話)를 수록 하여, 앞 장에서 익힌 한문 독해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활용하여 한문 워문(原文)을 해독하고 해당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해 당 원문 아래에는 출전과 관련한 정보나 독해에 필요한 어려운 단어 및 한자의 쓰임을 주석으로 달아 학습자의 이해를 돕도록 구성하였다. 이 는 한문 원문(原文)으로 제시된 Ⅲ. 산문(散文)~V. 사상(思想)의 예문 도 동일하다.

Ⅲ. 산문(散文)과 관련하여 1. 고전명문(古典名文)에서는 근대 이전의 동양 사회에서는 공사(公私)의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여러 종류의 글들 이 모두 문학(文學)에 속하여 현재에 통용되는 문학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한문산문(漢文散文)이 그 유구한 역사 속에서 각각 의 쓰임새에 따라 다양한 문체들이 발전해 왔고 무수히 많은 명편(名篇) 들이 나왔음을 밝히고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선인들이 남긴 대표 적인 글들 중에서 비교적 편폭이 짧고 문장이 평이한 작품들 중심으로 가급적 여러 가지 문체에서 골고루 뽑아서 수록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은 「경설(鏡說)」,「춘야연도리원서(春夜宴桃李園序)」,「출사표(出師表)」,「기아찬기(寄兒燦基)」,「송신문초유금강산서(送申文初遊金剛山序)」,「온달전(溫達傳)」,「백자증정부인박씨묘지명(伯姊贈貞夫人朴氏墓誌銘)」,「악양루기(岳陽樓記)」,「누실명(陋室銘)」,「어부사(漁父辭)」,「귀거래사(歸去來辭)」이다.

- 2. 역사(歷史)에서는 역사의 기록과 관련된 한문 문장에서 시대의 전변(轉變), 흥망(興亡)의 과정에서 움직이는 인간의 형상이 그 고뇌와 갈등까지 구체적으로 담겨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작품은 역사 기록일 뿐 아니라 예술성 높은 문학 작품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수록된 대표적인 작품은 「와신상담(臥薪嘗膽)」,「형가(荊軻)」,「사면초가(四面楚歌)」,「소무(蘇武)」,「안시성주(安市城主)」,「이순신(李舜臣)」이다.
- 3. 지리(地理)에서는 몰락한 지식인이 몰락을 거치면서 직접 팔도를 답사하며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한 지리서이자 사회 비평서라 할 수 있는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擇里志)』를 비롯하여 신숙주(申叔舟)의 『해 동제국기(海東諸國記)』, 원중거(元重擧)의 「안용복전(安龍福傳)」, 유재 건(劉在建)의 「고산자(古山子)」, 마테오리치(利瑪竇, Matteo Ricci)의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 등 지리(地理)와 관련한 한문 문장을 수록하고 있다.
- 4. 정치(政治) · 경제(經濟)에서는 유가사상을 대표하는 공자와 맹자가 '백성[民]'을 가장 중시하였다는 점과 동아시아의 전통적 정치, 사회사상으로서의 민본사상의 중요한 요소는 절약의 경제관이었음을 밝히고 이와 관련된 글들을 수록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은 김시습(金時習)의 「애민의(愛民義)」, 정약용(丁若鏞)의 「탕론(湯論)」, 안정복(安鼎福)의

「함장록(函丈錄)」, 박제가(朴齊家)의「시정(市井)」등이다.

- 5. 언어(言語) · 예술(藝術)에서는 언어와 예술에 관한 문장을 수록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선조 신분제의 질곡 속에서도 문학과 예술의 가치, 한 인간으로서의 주체를 명료히 각인시킨 인물들의 자취를 느껴 보도록 구성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은 정약용(丁若鏞)의 「천문평(千文 評)」, 이규상(李奎象)의 「세계설(世界說)」 등이다.
- 6. 과학(科學)・기술(技術)에서는 동양인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 을 관찰하고 사유하면서 발전시켜온 우주에 대한 심오한 이해. 그리고 실용적 기술의 진보를 가져온 지혜의 축적 역시 한문 글쓰기를 통해 이 루어져 왔음을 밝히고, '천문학', '수학', '의학', '농학', '기술'로 분야를 나누어 자료를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은 홍대용(洪大容)의 「지전설 (地轉說)」, 이익(李瀷)의 「산술(算術)」 등이다.
- Ⅳ. 한시(漢詩)에서는 한시(漢詩)는 한문학의 꽃으로, 중국은 스스로 를 '시국(詩國)'이라 일컬을 만큼 무수히 많은 명작을 유산(遺産)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 선인(先人)들 역시 한시의 여러 양식을 받아들여 우 리 정감(情感)과 현실을 표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음을 밝혔다. 작품은 자연(自然), 정회(情懷), 사회(社會)의 범주로 나누어 우리나라 와 중국의 대표적인 작품들로 구성하였다. 자연(自然)에 속하는 작품으 로는 도연명(陶淵明)의 「음주(飮酒)」, 정회(情懷)에 속하는 작품으로는 정지상(鄭知常)의 「송인(送人)」, 사회(社會)에 속하는 작품으로는 정약 용(丁若鏞)의「용산리(龍山吏)」등이 대표적이다.
- V. 사상(思想)과 관련하여 1. 원시유학(原始儒學)은 유가 사상의 원 류가 되는 공자(孔子)와 맹자(孟子)의 사상이 담겨 있는 『논어(論語)』 와 『맹자(孟子)』를 비롯해 『대학(大學)』과 『중용(中庸)』의 문장을 발췌 하여 유가사상의 기본 이념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2. 제자백가(諸子百家)는 중국사상의 양대 축을 형성한 유가(儒家)와 도가(道家)와 관련된 문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가(道家)와 관련해서는 도가사상의 정수가 되는 『노자(老子)』와 『장자(莊子)』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고, 유가(儒家)와 관련해서는 맹자(孟子)의 성선설(性善說)에 대응하는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한 순자(荀子)의 사상이 담겨 있는 『순자(荀子)』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 3. 송명리학(宋明理學)은 송명리학(宋明理學)에 대한 개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송명리학(宋明理學)의 두 축이 되는 송(宋)의 주자학(朱子學)과 명(明)의 양명학(陽明學)의 핵심적인 사상을 엿볼 수 있는 문장을 수록하고 있다.
- 4. 한국유학(韓國儒學)은 퇴계학(退溪學), 율곡학(栗谷學)과 실학(實學)으로 대변할 수 있는 한국유학의 흐름에 대해 간략히 제시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퇴계학과 율곡학이 사상의 주류였으나, 후대에는 실학 또한 시대의 고민을 짊어진 학문으로 평가받으면서 한국유학의 핵심으로 등장한 배경을 설명하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인 이황(李滉), 이이 (季珥), 정약용(丁若鏞) 등의 글을 수록하고 있다.

2) 실제 수업 내용과 방법

수업의 운영 방식은 중간고사 이전에는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하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발표-토론식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다. 그 러나 수강인원이 64명이나 되고 수강생 중 중국 유학생 수가 80% 이상 으로 현저히 많았기에, 한 학기 수업이 끝날 때까지 강의식 수업을 위주 로 진행을 하였다. 한문 관련 비전공자와 중국 유학생 비율을 고려하여 수업 초반에는 수강생들이 한자와 한자어를 중심으로 '한자의 구조'와 '한문의 문형'을 익혀 한문의 기초를 학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 고 수업 시간에 수강생들이 한자와 한자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부교 재인『사자성어 따라쓰기 365+』를 활용하여 사자성어를 익히는 시간을 마련하였고, 학습한 사자성어를 반복해서 따라 쓰면서 익히는 과정을 과제로 부여하여 수강생들의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려 하였다. 한 학기 동안의 진행된 주차별 수업 내용을 간략히 표로 제시하고, 실제 수업에 활용한 교수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주차	내용		
1주차	1학기 동안 수업할 교재 및 강의 계획서 안내		
2주차	'한자의 구조' 및 '한문의 문형'을 이해 / 사자성어 학습		
3~4주차	현대 사회에서 다각도로 숙독할 만한 고사와 일화를 소개 / 사자성어 학습		
5~7주차	한문학에서 정의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산문'을 이해하고, 각 장르의 대표 명문(名文)을 음미 / 사자성어 학습		
8주차	중간고사		
9~12주차	'역사', '지리', '정치 경제', '언어 예술' '과학 기술'에 관한 명문을 추려 일독 / 사자성어 학습		
13~14주차	원시유학(原始儒學), 제자백가(諸子百家), 송명이학(宋明理學), 한국유학 (韓國儒學)에 관한 개론과 주요 명문을 일독 / 사자성어 학습		
15주차	기말고사		

〈표1〉 기초한문의 주차별 수업 내용

(1)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고사성어의 풀이와 한문독해

스토리텔링이란, Story와 Telling을 합친 단어로 주인공 플롯 등이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다. 본래 문학, 영화, 교육 학 등에서 활용되던 방법이었으나 현재는 영화. 비디오. 게임. 광고 등 의 콘텐츠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고사성어나 사자성어가 본 래 주로 중국(中國)의 역사와 고전, 시가 등 옛 이야기에 유래를 두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제 수업에 활용하였다. 고사성어를 구성하고 있는 한자를 익히고 뜻을 풀이하는 과정에 앞서 고사성어의 배경과 관 련 내용을 먼저 이야기 식으로 풀어서 수강생들에게 전달한 뒤에 출전 (出典)에 기록된 원문(原文)을 읽고 독해하며, 최종적으로 고사성어의 본래 의미를 익히는 방식이다.

고사성어와 관련하여 스토리텔링 방식을 교수 방법에 활용한 이유는 요즈음 대학생들이 고사성어와 사자성어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고, 부득이 고사성어와 사자성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잘못 쓰는 경우가 허다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이 교수 방법은 고사성어의 배경을 먼저 이야기로 접한 뒤, 그 이야기를 한문으로 기록한 원문(原文)을 읽고 독해하면서 재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수 강생들이 기존에 고사성어나 사자성어에 대해 느끼는 거부감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 이 교수 방법은 수업 시간에 고사성어와 사자성어를 익히면서 자연스럽게 원문(原文)의 독해까지 이어가는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한문을 학습하는 데 효과적이다. 다음은 실제 기초한문수업 시간에 진행된 "결초보은(結草報恩)"의 학습 과정이다.

〈원문(原文)〉

結草報恩

晉魏顆, 武子之子. 初武子有嬖妾, 無子. 武子疾, 命顆曰: "必嫁是." 疾病則曰: "必以爲殉." 及卒, 顆嫁之曰: "疾病則亂, 吾從其治也." 及敗秦師于輔氏, 獲杜回, 秦之力人也. 顆見老人結草以亢杜回, 杜回躓而顚, 故獲之. 夜夢之曰: "余而所嫁婦人之父也, 爾用先人之治命, 余是以報."

『蒙求』

〈보충 각주〉

嬖(폐): 사랑하다.

而(이): 너.

治命(치명): 죽을 무렵에 맑은 정신으로 하는 유언. ↔ 亂命.

『蒙求(몽구)』: 중국 唐나라 때 학자인 李瀚이 지은 문자교육용 아동교재. 중국 역대의 뛰어난

인물과 그 행적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번역)

晉나라의 魏顆는 魏武子의 아들이다. 처음에 위무자에게 총애하는 첩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었다. 위무자가 병이 났을 때 위과에게 명을 내리기를, "(내가 죽으면 첩을) 반드시 재혼을 시키거라."라고 하였는데, 병이 위독해지자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 첩을) 반드시 순장을 시키거라."라고 하였다. 아버지가 죽자 위과는 그 첩을 재혼시키며 말하기를, "병이 위독하면 정신이 어지러우니, 저는 제 정신일 때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輔氏[地名]에서 秦나라 군대를 쳐부수고 진나라 장수 杜回를 생포하였는데, 杜回는 진나라의 힘센 장수였다. 위과는 어떤 노인이 풀을 엮어서 두회의 길을 막는 것을 보았는데, 두회가 묶어놓은 풀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두회를 사로잡을 수 있었다. (위과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노인이) 말하기를, "나는 (그대가) 재혼을 시킨 여인의 아비입니다. 그대가 그대의 아버지가 제정신일 때 내린 명을 따랐기에 내가 이렇게 보답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018	結	草	報	恩
	맺을 결	물 초	갚을 보	은혜 온

◎ 結草報恩(결초보은)

은혜를 입은 사람의 아버지가 호령이 되어 풀 포기를 묶어 적이 걸려 넘어지게 함으로 은인을 구해주었다 는 고사에서 나온 말로, 혼령이 되어서라도 은혜를 잊 지 않고 갚는다는 뜻.

0 / 4 4 4 4 4 4 4 4 4 4 4 4

結	草	報	恩
X	X	X	X
0.50			0 2

수업이 진행된 순서는 다음과 같다. "결초보은(結草報恩)"이라는 고 사성어를 학습하기 이전에 한자의 음과 뜻을 설명하고 간략히 풀이한 뒤에 "결초보은(結草報恩)"이라는 성어가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 에 '보씨(輔氏)'라는 지역에서 벌어졌던 진(秦)나라와 진(晉)나라의 전 투에서 유래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어 이와 관련한 고사(故事) 에 등장하는 진(晉)나라의 위과(魏顆), 위무자(魏武子), 위과(魏顆)의 첩, 진(秦)나라 장수 두회(杜回) 등의 인물과 그들 사이에 있었던 일련 의 사건을 스토리텔링을 방식을 활용하여 상세히 설명해주었다.

다음으로 교재에 수록된 보충 각주를 활용하여 한문 원문(漢文原文)을 읽고 독해하는 동시에 스토리텔링을 통해 전달했던 "결초보은(結草報恩)"의 이야기를 상기하는 과정을 거쳐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해당 성어와 관련된 고사(故事)와 한문 원문(漢文原文)의 내용을 연계시켜 원문(原文)을 좀 더 친숙하게 느끼고, 성어의 본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에는 사자성어 부교재에 나와 있는 "결초보은(結草報恩)"을 여러 차례 따라 쓰면서 한자와 한자어를 익히도록 하였다. 이 수업에서 활용한 스토리텔링 방식은 고사성어와 관련된 한문원문(漢文原文) 뿐 아니라, 역사와 문학 등 해당 기록과 관련이 있는 사건과 일화가 존재할 경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수방법이다.

(2) 원전자료와 영상매체를 활용한 역사류 한문의 수업

한자 교육에 있어 매체의 활용에 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시도되었고7), 실제 한자 수업에 다양한 매체를 적용시켜 학습 모형을 제시한 연

⁷⁾ 한자 교육 분야에 있어서 매체와 관련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동규, 「매체를 활용한 한문과 교수 학습법-UCC & FLASH를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제20집,

구도 있었다.8) 실제 수업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수 방법은 중등한문 교과에서 대학 교양 한문 교과에 이르기까지 학습자 대상에 관계없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수방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 수업현장에서 교수자가 활용할 수 있는 매체의 종류 역시 다양하다. 필자가기초 한문 수업을 진행하면서 활용한 매체는 실제 한문 원전(漢文原典)과 영상매체이다. 한적본(漢籍本)형태의 한문 원전을 접해보지 않은학생들에게 현대적으로 가공되고 편집되지 않은 한적본(漢籍本)형태의 원전(原典)을 보여주고 소개하는 과정은 그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특히 수업 내용과 관련된 영상 매체인 영화를 활용하였을때 학생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수업 내용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은 실제 기초한문 수업 시간에 진행된 "안시성주(安市城主)"의학습 과정이다.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8, pp.111-139; 김병철, 「제7차 고등학교 한문교육에서의 매체 활용 교육 실태」, 『한자한문교육』 제20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8, pp.142-180; 이승현, 「제7차 중학교 한문 교육에서의 매체 활용 교육 실태」, 『한자한문교육학회, 2008, pp.77-110; 임정훈, 「다시 생각해본 교수매체의 효과성 논쟁 - 매체와 학습과의 관계 이해와 매체 활용 교육에 주는시사점」, 『한자한문교육』 제20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8, pp.365-389.

⁸⁾ 대학 교양 한문과 관련하여 영화를 활용한 연구로는 송호빈, 「영화를 활용한 대학 漢字·漢文 入門 講義의 일례: 漢字(語)·漢文(古典)의 존재양상과 의미 되묻기」, 『어문연구』제48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0, pp.55-84; 임준철, 「한시와 영화 엮어 읽기- 대학 교양교육에서의 한시 교육 방안에 대한 일 모색」, 『한문교육연구』 제51집, 한국한문교육학회, 2018, pp.5-60이 있다.



영화 안시성(安市城)

道拜 於 将 帝 穆 源 罪 車 車 帝 薛帝嘉其国守赐 安 盡 用 遠 市 将 勒 為跟帝自繫新於馬鞘 馬不通命無忌将 孟 日 太騎 汝 班左 明 城 罪當死但 且 下 師先拔遼盖二 而 有破 寒草枯 四萬為殿至遼東度遼水遼 放城 盖年遼東之功 纁 水凍士 朕 中 皆屏 以漢 萬人前前草 百正 州 馬難 以助 12 赤不出 户口 正, 勒事 殺 度遼乃耀 役 填 久留且 王 谓 ,君命世 城主登 特 久 恢 水深 較 不 耀 汝 如 敖 虚 泥 城

『삼국사기(三國史記)』 안시성주(安市城主) 관련 기사

〈원문(原文)〉

安市城主

金富軾

唐太宗與諸將,進攻安市城,城中堅守不下. 唐將李道宗督衆,築土山於城東南,侵迫其城,城中亦增高其城,以拒之. 道宗令士卒分番交戰,日六七合,衝車砲石,壞其樓堞,城中隨立木柵,以塞其缺. 築山凡六旬而成,山頂去城數丈,下臨城中. 山壞壓城,城將崩,我軍數百人,從城缺出戰,遂奪土山而守之. 帝怒,命諸將攻之,三日不能克. 帝以遼左早寒,草枯水凍,士馬難久留,且糧食將盡,命班師,安市城主登城拜辭.

『三國史記』

〈보충 각주〉

唐太宗(당태종, 599~649): 당나라 제2대 황제 李世民. 재위 626~649. 隋나라 煬帝의 폭정으로 내란이 심해지자 부친 李淵을 설득하여 거병, 長安을 점령하고 당나라를 건립했다. 명신 魏徵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선정을 베풀어 '貞觀의 治'라 칭송받게 되었다. 고구려 침공실패 후 부상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安市城(안시성): 고구려의 산성으로, 중국 遼寧省 長大鐵道의 海城 남동쪽에 있는 英城子 산성이라 추정된다.

李道宗(이도종, 600~653): 당 태종의 사촌으로, 江夏王을 지냈다. 645년 고구려 침공 시 부대총관으로 전투에 참가하였다.

〈번역〉

唐太宗이 여러 장수와 함께 안시성으로 진격하였는데, 성 내부에서 굳게 지켜내어 성을 함락 시키지 못하였다. 당나라 장수 李道宗이 군대를 독려하며 성 동남쪽에 土山을 쌓아 성을 압박하려고 하였다. 성 내부에서도 성을 높게 쌓아서 방어하였다. 이도종이 병사들에게 순번 을 나누어 날마다 6~7차례 교전을 치르게 하였는데, 충차와 투석기로 망루와 성가퀴를 무너 뜨리면 성 내부에서는 곧바로 목책을 세워 그 틈을 막았다. 토산을 쌓아 거의 60일 만에 완성하였는데, 토산 정상에서 안시성까지의 거리는 몇 길 밖에 되지 않았으며 아래로 성 내부가 보였다. 토산이 무너져 성을 눌러 성벽이 무너지려하자. 고구려군 수백 명이 성의 틈에서 나와 교전을 하여 마침내 토산을 빼앗아서 지켜내었다. 황제[당태종]가 진노하여 여러 장수에게 명을 내려 3일 동안 공격을 퍼부었으나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황제는 요하 좌측 지방이 추위가 일찍 찾아오고, 풀이 말라죽고 강물이 얼어 병사와 말을 오래 머무르게 하기가 어렵다고 여겼고 게다가 군량도 거의 떨어졌기에 군대의 철수를 명하였는데, 안시성의 城丰 가 성 위에 올라 작별인사를 하였다.

해당 원문은 김부식(金富軾)의 『삼국사기(三國史記)』에 기록된 「안 시성주(安市城主)」와 관련된 내용으로, 당 태종(唐太宗)의 고구려 침략 때 안시성을 지켜낸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楊萬春)과 관련된 기록이다. 먼저 학생들에게 해당 원문이 기록된 역사서인 한적본(漢籍本) 『삼국 사기(三國史記)』를 보여주고 옛날 책에 해당하는 한적(漢籍)이 어떤 과 정을 통해 제작되고 출판되었는지를 설명해주자 그에 대해 상당히 관 심을 보였다. 아울러 원문을 읽고 독해하기 전에 당태종의 고구려 안시 성 침략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모티브로 제작한 영화 '안시성'의 토성 전 투와 관련한 주요 장면을 10분가량 시청하였으며, 안시성 전투의 대략

적인 줄거리를 수강생들에게 스토리텔링 방법을 활용하여 전달하였다. 교재에 수록된 보충 각주를 활용하여 한문 원문(漢文原文)을 읽고 독해하기 이전에 학생들은 이미 영화 '안시성'을 시청하여 대략적인 스토리를 알고 있고, 안시성 전투에 관한 배경 지식이 있었으므로, 원문을 읽고 독해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원전자료와 영상매체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은 역사류 한문을 수업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다. 실제 수업에서 한문의 독해에만 치중하지 않고 역사적 사건과 관련한 배경 지식을 수강생들에게 전달하고 실물 한문 원전과 관련영상을함께 활용함으로써 한문에 대한 수강생들의 저변 지식을 확대하는 동시에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었다.

Ⅲ. 교양 한문 수업의 피드백과 개선 방안 제시

실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강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부분은 한 학기 동안 진행한 수업 과정과 내용이 과연 교양 한문의 개설 취지와 그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가의 문제이다. 그와 함께 실제 수업 시간에 수강생과 얼마나 원활하게 소통을 하며 수강생의 학습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피드백이 이루어졌는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교양 한문 교강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교강사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였고 수업 내용이 수강생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의 문제는 수강생의 강의 평가에 가장 잘 드러난다. 본 장에서는 필자가 수업했던 기초한문 강좌에 대한 수강생들의 강의 평가를 중심으로 논의해보려 한다.

1. 수업에 대한 수강생들의 실제 평가

다음은 수업에서 인상 깊고 유익했던 점에 관한 수강생의 의견이다.

- 한자에 대한 지식을 많이 배웠다.
- 수업을 비교적 천천히 알기 쉽게 가르쳐 주어 인상 깊었다.
- · 교과 내용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교과 이외의 지식, 그날그날의 수업과 관련 있는 고사들 을 알려주는 것이 매우 인상 깊다.
- •대체적으로 한문을 해석하는 방법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이 기쁘다. 그전에 신비스럽 게 느껴지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아가는 것이 좋은 것 같다.
- 한문의 이해. 한문의 역사에 대해 쉽게 잘 해석해 준 수업들이 인상 깊고 유익했다.
-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더 수업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지, 피드백을 잘 반영해주었다. 한 학기 동안 한문에 대해 전보다 더 흥미를 가지고 배울 수 있었다.

위의 항목을 통해 기초한문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염두에 두었던 교 강사의 수업운영에 관한 고민과 실제 수업에서 활용한 스토리텔링 방 식이나 원전자료와 영상매체가 수강생들의 한문 학습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한문에 대한 수강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는 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처음 수업을 설 계할 때에 교강사가 교양 한문을 단순히 도구과목이라 생각하지 않고. 교양 교육의 범주에서 한문 교과가 달성해야할 고유 목적이 무엇인가 를 고민하였고, 그 고민이 실제 수업에 반영되어 수강생들이 교양 한문 에 대해 바라던 점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본다. 여 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교강사는 수강생이 교양 한문을 통해 어떤 내용을 학습하고자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사실과 교 양 한문 교과가 지향하는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 수업 내용을 수강생에 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 교강사는 지속적으로 고 민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기초한문 수업에서 활용한 스토리텔링 방식이나 매체를 활용하는 방식은 그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며,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찾아 실제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은 교 강사에게 주어진 숙제이다.

다음은 수업에서 느꼈던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한 수강생의 의견 이다.

- ·기초한문이라는 과목에 맞게 한자의 뜻과 음을 좀 더 자세히 하나씩 천천히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 한자를 설명할 때 음과 뜻을 함께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혼동되어 들린다.
- ·내용을 해설하기 전에 한문 문장을 한국어 발음으로 읽어주기를 바란다. 중요한 내용을 가르칠 때 중요하다고 강조해주기를 바랍니다.
- ·가끔씩 긴 문장의 뜻을 풀이할 때 빠른 경우가 있어서 조금만 천천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항목에서는 위의 항목과 비교하여 수강생 사이에 학습편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수강생의 수준을 최대한 고려하여 최대한 천천히 수업을 진행하였음에도 그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수강생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수강생 구성원 중 80% 이상이 중국 유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한자의음과 뜻을 쓰고 익히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한국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점이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외국인유학생 중에는 수업내용을 완벽히 이해할 만큼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생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는 수업과정에서 한자의 음과 뜻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하고 천천히 수업을 진행하는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한국어

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유학생에게 한국어로 진행되는 교양 한문 수업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한국어에 능통한 중국 유학생을 통해 한국어에 미숙한 다른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한편 지 속적인 피드백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나아졌다. 그러나 중국 유학생 들이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는 앞으로 중국 유학생의 비율이 증가하는 각 대학에서 한문 교양 강좌 를 개설할 때 분명히 고려해야하고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2. 교양 한문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본 장에서는 필자가 성균관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진행했던 기초 한문 수업의 실례와 수강생들의 수업 평가에 근거하여 대학 교양 한문 교과에서 효율적인 수업운영을 위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다.

첫째. 학습자의 한문 능력과 수준의 편차를 고려한 수업 운영이 이루 어져야 한다. 이는 한국인 학생들로 구성된 교양 한문 강좌나 중국인 유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교양 한문 강좌나 마찬가지이다. 해당 학기에 어떤 수준의 학생들이 강좌를 수강할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강 사가 미리 수업 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동 안에는 수강생의 한문 능력과 수준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는 수업 운영 을 하고, 수시로 수강생의 학습정도를 파악하면서 지속적인 피드백 과 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강의식 수업과 학습자 중심 수업의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다. 물

론 기초한문의 경우처럼 중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월등히 높고, 수강생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한문 수업에서는 주로 강의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되, 수업시간에 수강생들이 고사성어를 쓰고 익히는 시간을 마련하고 고사성어를 반복해서 쓰고 익히는 과정을 과제로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교강사 위주의 획일적인 수업에서 탈피하여 학습자들이 지속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수강생이 지속적으로 생소한 한자와 고사성어를 익힐 수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다른 교양 한문 교과에서도 수강생의 학습 효율을 높일 뿐 아니라, 수강생의 지적 욕구와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방편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 다양한 교수자료와 학습 자료의 모색과 활용 방안에 대한 교강사의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대학 교양 한문 교과에서도 학습자 중심 수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수강생들의 한문 수준과 능력을 고려할 때 실제 수업에서는 대부분 교강사의 강의식 수업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강의식 수업에서 교강사가 어떤 교수자료와 방법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가이다. 교수자료와 교수방법의 선택이 수강생의 수업 이해와 교양 한문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활용하고 영화를 수업에 활용한 기초한문의 사례에서도 살펴보았다. 교수자료와 교수방법을 효율적인 수업진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파급력과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 역시 공감하고 인지하는 부분이다. 이는 앞으로 대학 교양 한문교과 수업을 진행하는 교강사라면 누구나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해야할 문제이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현재 대학 교양 교육에서 한문 교과가 당면하고 있는 내·외부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성균관대학교 기초한문 수업 의 사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수업의 개선 방 안과 효과적인 교수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Ⅱ.성균관대학교 교양한문의 운영 사례에서는 학습자의 수강 목적과 그 의미에 대해 재검토하고, 수강생의 현황과 수업 개요와 교재의구성에 대해 정리하였다. 실제 2018학년도 2학기 기초한문 강좌에서 활용했던 주교재인 『교양한문(敎養漢文)』의 편찬 및 구성 의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목차(目次)를 간략히 제시하였다. 실제 수업 내용과 방법에서는 기초한문 수업시간에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고사성어의 풀이와 한문독해"와 "원전자료와 영상매체를 활용한 역사류 한문의수업"을 예시로 들었다.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에서 교수자 중심 수업의 효과적 운영과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업 방안을모색하였다.

Ⅲ. 교양 한문 수업의 피드백과 개선 방안 제시에서는 성균관대학교 교양 한문 수업의 사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실제 수업을 통해 수업 내용의 전달 정도와 실제 수업 진행에 있어 학습자가 느끼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향후 교양 한문 교과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개선해야할 방안을 논의해 보았다.

물론 본 연구가 대학 교양 교육에서 한문 교과와 관련한 개별학교의 사례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각 대학들이 직면하고 있는 내·외 부적인 문제 역시 본고에서 고찰한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기에 교양 교 육에서 한문 교과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실제 수업 현장에서 그리고 대학 교양에서 한문 교과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성균관대학교 교양한문 편찬위원회,『敎養漢文』,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6 우리한문학회. 『사자성어 따라쓰기 365+』, 문자향, 2016 金富軾、『三國史記』、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古213-1]

- 김동규, 「매체를 활용한 한문과 교수 학습법-UCC & FLASH를 중심으로」, 『한자한문 교육』제20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8, pp 111-139
- 김병철. 「제7차 고등학교 한문교육에서의 매체 활용 교육 실태.. 『한자한문교육』 제20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8, pp.142-180
- 김영우, 「대학 교양 한문 교육의 방향-인제대학교(仁濟大學校) 교양(敎養) 한문(漢 文)을 중심(中心)으로-」、『漢字漢文教育』 27집, 2011, pp.311-334.
- 송호빈, 「영화를 활용한 대학 漢字·漢文 入門 講義의 일례: 漢字(語)·漢文(古典)의 존재양상과 의미 되묻기.. 『어문연구』제48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0, pp.55-84.
- 이승현, 「제7차 중학교 한문 교육에서의 매체 활용 교육 실태」、『한자한문교육』제20 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8, pp 77-110
- 임정훈 「다시 생각해 본 교수매체의 효과성 논쟁-매체와 학습과의 관계 이해와 매체 활용 교육에 주는 시사점.. 『한자한문교육』 제20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8, pp.365-389.
- 임준철, 「한시와 영화 엮어 읽기-대학 교양교육에서의 한시 교육 방안에 대한 일 모색」、『한문교육연구』 제51집, 한국한문교육학회, 2018, pp 5-60
- 한새해. 「대학 교양교육에서 한문 교과목의 효율적 운영방안-서강대학교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漢字漢文教育』46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9, pp155-175.

Abstract

A Study on Operation of Chinese Character Education in Universities and Improvement Measures

- Focusing on Basic Chinese Class in Sungkyunkwan University -

Lee, Seung-yong

In liberal arts education in universities. Chinese character class is not limited to pure learning from learning Chinese character to Chinese language and reading and understanding Chinese characters. In narrower aspect, learning Chinese characters in liberal arts education enhances understanding on Korean words and becomes the fundamental base for enhancing literacy because Korean words as over 60% of them are Chinese characters. In broader aspect, learning Chinese characters in literal arts education helps identifying and understanding the history and traditional culture by learning the basic skills for approaching the Classical Chinese writings that cover from literature to historical studies and philosophy. While Chinese character class holds considerable influence and ripple effect in literal arts education in universities, the status of Chinese character class is diminishing in literal arts education in universities. Without identifying the present status of Chinese character class in literal arts education of universities and without trying to improve the Chinese character class in reflection of learner's needs, the Chinese character class will face the crisis in existence.

In response,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improvement measures and effective teaching method by examining and analyzing the textbooks and teaching methods utilized in Basic Chinese Character Class of Sungkyunkwan University. While it may be regarded as the case of an individual school,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as it is directly related to seeking the effective operation measures for Chinese character class

in liberal arts education in each university.

Key Words: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Chinese Character Class, Basic Chinese Character Class. Teaching Method

이승용

소속: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연구교수 전자우편: Isy-0700@hanmail.net

이 논문은 2021년 5월 23일 투고되어 2021년 6월 18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1년 6월 25일 게재 확정됨.